

◁ 書 評 ▷

Chinese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and Affairs

Volume I (1981), published by
Occasional Paper/Reprints Series
in Contemporary Asian Studies,
Inc. for the Chinese Society of

International Law-Chinese(Tai-
wan) Branch of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1982, vii 294 pages.

中國國際法年刊 1982
中國國際法學會 編輯
中國對外翻譯出版公司 出版
1982. 北京 × 508頁

1980年代에 접어들면서 臺灣과 中共의 國際法學界에서는 中國全體의 國際法學에 關한 劃期的인 二大 研究業績이 나타났다. 즉 1982년에 臺灣의 中國國際法學會와 世界國際法協會 臺灣支部는 標題와 같은 英文版 國際法·國際問題年鑑을, 그리고 中共의 中國國際法學會는 中文版 國際法年刊을 各各 創刊號로서 發行했다. 筆者는 1983年 8월에 偶然히 이 두年鑑의 編輯에 參與했던 雙方의 國際法學者들과 同席한 자리에서 「中國에는 臺灣과 北京에 二個의 中國國際法學會가 共存하며 年鑑도 같은 해에 두 卷이 나왔으니, 中國의 國際法學者들은 如前히 二個의 中國을 믿느냐?」고 弄談을 한 일이 있으나, 이것은 單純한 遇然의 一致로 보아 넘기기에 是 너무도 意義가 깊을 뿐 아니라, 이웃나라의 國際法學徒들에게는 자못 부러운 일이기도 하다.

우선 各 年鑑의 內容에 들어가기 전 에 編輯의 背景에 關해서 몇 가지 言及 할 必要가 있어 보인다. 먼저 臺灣版의 編輯陣을 보면 大部分이 歐美에서 修學한 臺灣의 少壯法學者들이고 其外에 美國人法學者들 二, 三名의 이름도 보인다. 이들 外國人 編輯委員들은 이 年鑑의 編輯을 主管했던 美國 Maryland 州立大學校 法科大學의 丘宏達教授 主管下 에 同法大에서 國際法을 研究하고 있는 美國人學者들로서 中國의 國際法問題에 造詣가 있는 분들이다.

近年에 Maryland 法大는 Columbia 法大와 더불어 美國에서 中國에 關한 法學 研究가 가장 活氣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Harvard 法大의 東亞法律研究 所가 Jerome Cohen 教授의 辭任後 자 못 沈滯狀態에 빠져 있어서 이 두法大의 中國法研究는 더욱 그 頭角을 나타 내고 있는데, 그 理由로서는 丘教授와

Columbia 法大의 Edwards 教授는 모두 Harvard 法大에서 오랫동안 中國法을 研究하여 그 實績을 認定받은 法學者들이라는 點도 들 수 있다. 특히 丘教授는 Cohen 教授와의 共著 「People's China and International Law」(1970頁, 1974年 Princeton 大 出版社)로 널리 알려진 臺灣出身 屈指의 在美 國際法學者인바, 두卷으로 된 이 大作은, 資料集에 不過하다는 批評과는 달리 中共의 現代 國際法 研究의 基礎를 攄아놓은 里程表라고 할 수 있다.

丘教授의 또 하나의 研究業績으로서 는 이 年鑑의 發行處로 되어 있는 Maryland 法大의 Occasional Papers/Reports Series in Contemporary Asian Studies, Inc의 事業을 들 수 있다. 이것은 臺灣과 中共의 法 뿐 아니라 人文·社會科學 全般에 關한 問題를 다룬 論文을 팽프렛 規模로 發刊하거나 再版하는 出版事業인데, 現在 通卷 第61號에 이르고 있다. 언제나 謙虛한 態度로 꾸준히 實績을 쌓으면서 外國에서 自國의 法學研究에 크게 貢獻하고 있는 것은 높이 評價해야 할 것이며 본 刊을만 한다는 點도 아울러 指摘해두고자 한다.

北京版의 中國國際法年刊의 경우 역시 發行될 때까지의 背景은 자못 興味로울 뿐아니라 아직 外國에는 많이 紹介되지 않고 있으므로 약간 仔細히 記述해 보기로 한다.

1971年 UN 總會의 決議에 따라서 臺灣의 中國代表席을 이어받은 中共은 UN을 비롯한 여러 國際機構에 들어와서

UN 安保理事會의 常任理事國으로서 그리고 政治大國으로서의 位置를 構築하여 이제 是 強大國으로 國際政治에 臨하고 있음은 否認할 수 없는 現實이다.

그러나 建國後 20年 以上을 一部 社會主義圈을 除外한 外部世界와는 閉鎖된 狀態에 있었고, 1966年에 始作한 所謂 文化革命의 10年間은 學術을 包含한 거의 모든 分野에 있어서 常識的으로는 理解하기 힘든 空白期를 거친 結果로, 一但 國際社會에 登場은 했으나 政治大國으로서 當面한 隔離感, 심지어는 疏外感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第2次大戰 後에 國際社會의 構成員의 數는 3倍로 늘었고 따라서 國際關係는 幾何級數의 樣으로 多樣化해지고 複雜해졌으며, 새로 나타난 100餘個 後進國들은 第3世界라는 새로운 壓力團體로서 既存의 政治·經濟秩序에 挑戰하게 되자, 아무리 政治大國이라고는 하지만 「新入社員」에 不過한 中共의 處身은 決코 容易한 것이 아니었다.

이와같이 1981年 以後 1年間을 國際政治의 激浪속에서 지나온 中共은 毛·周體制의 後繼問題라는 國內政治上的 混亂過程도 同時에 겪어야 했다. 이리하여 1980年代에 이르러 對內的으로는 政治體制的 再確立 및 經濟開發, 對外的으로는 새로운 國際政治·經濟秩序에 對한 좀더 組織的인 接近과 適應이라는 緊迫한 必要에 直面하게 되었다. 1982年 2월에 北京에 中共의 中國國際法學會가 發足된 것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狀況에 對한 反應의 一環에서 나타난 것으로

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中文版의 「中國國際法學會의 成立及其活動」이라는 報告(305~314頁)에서 同學會秘書長이며 同年刊의 15명으로 構成된 編輯委員會의 한 사람인 徐鶴皋는 學會의 成立過程을 매우 仔細하게 記述하고 있다. 즉 그 創立大會는 1982年 2月 2日부터 5日까지 北京에서 開催되었으며, 中國社會科學院 法學研究所를 비롯하여 政治 經濟 外交 貿易 金融 保險 등 各分野의 學者·實務者 約 200名이 參加한 「建國30年來[我國]國際法學界의 一次空前盛會」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大會에서는 中國國際法學會長에 當選된 中國社會科學院 副院長 宦鄴의 「關於加強我國國法研究工作的幾點意見」을 비롯하여 國際公·私法 各分野에 關한 論文 34篇이 發表되었다는바, 이事實은 中共의 國際法問題를 研究하는 外國學者들에게도 큰 關心事가 아닐수 없다.

다른 發表者들의 여러 論文中에서 注目할만 한 것으로는, 外交部 條法司司長(우리나라의 外務部國際機構·條約局長에 該當) 邵天任의 資本主義圈과 社會主義圈의 國際法批判, 國際貿易促進委員會 副主任兼同委員會法律事務部長 任建新的 對外貿易에 있어서의 國際法의 重要性, 外國合資管理委員會 副主任 汪道涵(現在는 上海市長으로 轉任)의 外國企業과의 合作投資問題에 關한 것들을 들 수 있다. (筆者의 所見으로는, 이 34篇이야말로 現時點에 있어서의 中共의 國際法에 對한 態度뿐아니라 그

水準 및 今後의 對外政治 및 經濟에 關한 政策·方向 등을 學者와 實務官吏들의 論文을 通하여 直接的으로 알아볼 수 있는 稀貴한 資料임이 틀림없으므로, 同大會의 進行에 直接 關한 中共의 法學者 袁傳竟과 더불어 英譯 혹은 中·英對譯의 單行本 發行을 協議中에 있음. 이 中文版年刊 自體의 英譯本 出版에 關한 風聞은 있으나 尙今 實際로 發行되지는 않은것 같음).

이 中文版年刊과 關聯하여 끝으로 또 한가지 덧붙이고자 한 것은 그 編輯陣의 構成에 關한 것이다. 編輯의 主管은 北京大法大의 國際公法主任 王鐵崖教授와 副主任 陳體強教授가 맡고 있는데, 이 두教授는 모두 戰前에 英國에서 修學한 中共國際法學界의 元老들로서 近年에는 歐美學界에서의 巡迴講演 및 國際會議등을 通하여 外國의 國際法學界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陳教授는 1951년에 London에서 濫行된 The International Law of Recognition이라는 名著로 일찍부터 外國에 그 業績이 紹介되어 있고, 最近에는 UN總會 第6分科委員會(法律問題)에 中共代表로 參加하는 등 多彩로운 活動을 하고 있으며, 1983年 5月的 中共民航機 拉致事件에 關해서는 同年 7月末에 서울에서 同 拉致犯들에 對한 實刑이 言渡되자 8月 25日 字 人民日報에 投稿한 글에서 刑量이 너무 輕微하다는 要旨로 韓國政府를 詰難하게 攻駁한 일도 있다. 다른 몇몇 編輯委員들 중에도 人民日報나 國際法專門誌를 通하여 外國에 紹介된 學者들

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倪征燾教授는 1970年代에 中共의 第3次UN海洋法會議代表團의 顧問등 오랫동안 多樣한 活動을 하다가 現在는 UN 國際法委員會 委員으로 在任中이다.

다음에 이 두 年鑑의 內容에 있어서 는, 臺灣의 英文版에는 4篇의 論文이 收錄되어 있는데(1~96頁), 丘教授自身이 執筆한 臺灣·北京의 承認問題에 關한 것을 비롯하여, Ralph Clough의 臺灣의 國際的 地位, 馬教授의 東支那海石油開發과 外國投資, 그리고 沈教授의 中共의 對外關係에 있어서의 臺灣問題 등 모두 中共과 臺灣에 關한 것들이다. 이 중에서 馬英九教授의 論文은 著者가 Harvard 大法에서 쓴 學位論文 中에서 一部를 拔粹·整理한 것으로서 39頁(35~73頁)에 達하는 特殊한 問題를 다룬 力作이라 하겠다.

「Recent Development」(74~140頁) 標題下의 3篇 역시 모두 臺灣問題를 다룬 것이며, 臺灣의 國際法上的 慣行및 判決文의 部分(141~156頁)에는 臺灣의 國際法問題에 關한 參考文獻등이 잘 整理되어 있고, 書評部分(157~178頁)과 其他資料部分(179頁以下)에도 臺灣의 對外關係를 正確히 알 수 있는 여러가지 統計와 記錄이 거의 總網羅되어 있다. 特히 1979年에서 1980年間に 臺灣의 專門誌 등 定期刊行物에 主로 中國語로 發表된 國際法·國際關係分野의 65篇의 論文目錄이 收錄되어 있어서(273~283頁), 外國의 國際法學徒들에게 크게 參考가 될 것이며, 臺灣에서 中國語로 發刊되

는 國際法·國際關係分野의 定期刊行物 目錄과 卷末의 索引 역시 이年鑑의 有用性을 높이는에 一役을 擔當하고 있다.

北京의 中文版 年刊의 경우는 그 內容에 있어서 위의 臺灣版에 比하여 몇 가지 重要한 差異點을 볼 수 있다. 우선 論文 8篇(9~191頁)은 거의 모두가 國際法上의 一般的인 現實問題를 다루고 있고, 評論이라는 標題下에 다시 6篇(195~267頁)의 小論文을 실고 있는데 이것들 역시 國際法上의 現實問題에 關한 것들이다. 이 點은 臺灣版이 主로 臺灣問題에 關한 것과는 顯著한 對照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書評(375~404頁) 및 文件·資料(407~508頁) 標題下의 內容이나 形式은 臺灣版 혹은 다른 國際法年鑑類와 大同小異하나, 學術組織與學術活動(305~372頁) 標題下에 나타나 있는 內容은 자못 特異한 것이다 하겠다. 즉 이 部分에서는 中共의 中國國法學會의 成立過程에 關한 前記 徐鶴皋의 報告外에 UN 國際法委員會, 亞·阿法律諮問委員會, 世界國際法學會, 世界國際法協會, 海牙國際私法會議, 그리고 海牙國際法學院 등 6個의 國際法團體·研究機關 등이 상당히 仔細히 紹介되어 있고, 나아가서 7個國內의 國際法學會가 루마니아, 日本, 캐나다, 英國, 프랑스, 美國, 그리고 소련의 順序로 紹介되어 있다. 이것은 創刊號로서 中共內의 後輩學徒들에게 國際·國內規模의 國際法研究體制에 關한 認識을 向上시켜 주려는 情報제비 쓰라고도 볼 수 있으며, 다른 類似한

國際法年鑑의 創刊號들이 依例것 取扱하고 있지 않는 색다른 點으로서 指摘해 돌만하다.

끝으로, 北京版 中國國際法年刊의 內容과 關聯하여 좀더 나아가서 그 論調를 살펴보면 한가지 漸進의인 發展 혹은 變遷을 엿볼 수 있다. 즉 專門誌 등에 나타난 論文 등을 相當한 時日을 두고 細密히 觀察하면 同一著者의 同一分野의 論文들이라도 初期에는 極히 一般的이고 平凡한 論調에서 漸次 具體的이고 特殊한 方向으로 갈수록 焦點이 明確해 진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 點은 政治的으로 激動期를 겪고있는 全體主義圈의 時事性을 면 學術論文에 나타나는 하나의 特性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內容이 一般的이고 平凡한 까닭은 著者의 研究水準이나 能力에 起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反面에 著者가 政治的인 理由로 「몸조심」을 하에서 나타나는 特有的 現象임을 看過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著者는 흔히 여러 同僚들과 共著의 形式을 取하는 例가 많다. 中共의 경우 역시 例外는 아니어서 國際法分野에 있어서도 內容이 一般論에 치우친 共著論文을 흔히 볼수있었으나 (勿論 教材類 등 多數의 著者가 必要한

書籍類는 例外로 하고), 近間에 이르러서는 單獨으로 特殊한 題目을 細密히 分析하는 論文들이 많이 發表되고 있음은 外國의 國際法學徒들로서는 매우 반가운 現象이라 하겠다. 특히 四人組의 橫暴가 사라진 후부터는 多數의 定期刊行物들이 復刊 혹은 創刊되었다는 事實은 中共學者들의 研究活動도 從前과 같은 制約에서 그 나름대로 解放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지 한가지 바라고 싶은 點이 있다면, 北京의 國際法年刊과 같이 外國의 國際法學界에서도 깊은 關心의 對象이 되고있는 學術書籍의 경우에는 中國語版外에도 英文版이 마련될 수 있다면 좀더 널리 活用될 수 있을뿐 아니라 中共과 外國의 國際法學界間의 相互交流和 理解增進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다. 이와 關聯해서 本來 主로 獨逸語로 쓴 論文만을 收錄해오던 西獨의 國際法年鑑(Kiel 大國際法研究所發行)이 數年前에 그 書名을 獨逸語에서 英語로 바꾸었고(獨逸語書名은 副題로두고) 掲載된 論文들도 大多數가 英語로 쓴 것임을 想起해 보면서 붓을 놓는다. 追記: 前記陳德強教授는 本評脫稿後인 1983. 10 作故

1983. 11 박 춘 호